

# “공공기관 중부권 쏠림 여전...남부권 배정 정부개입 필요”

전남도·민주당 전남도당 국회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정책 토론회’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한 제1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에도 정부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핵심 변수는 1차 이전과 달리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며, 충청권에 견주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남 등 남부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 개입을 적극 요구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남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주최로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 공공기관의 불균형 분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70.2%는 중부권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362개 중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각각 157개, 84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반면 남부권인 호남에는 29개(8%), 영남에는 74개(20.4%)의 공공기관이 있을 뿐이다.

오 연구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과 남부권의 경제성장 격차는 1960년대 이후 불균형한 성장 전략 추진의 결과로, 이 불균형을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두 권역 모두 공멸할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

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기존의 권역별 총량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이전기 균등배분은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이전기관 차등 배분 시 균형 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원 한림대 교수는 “혁신도시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할 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대해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최대 80개 기관(제1안) ▲1차 이전 당시 미이전 기관+추가 지정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 시 총남과 대전이 각 10개씩 20개 선정하면 대상 기관은 60개 이하(제2안)에 불과하며 “이 정도 이전으로는 정책 효과가 미비하고, 향후 정책 추진 의지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제2안의 대상기관에 이전 검토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전 가능한 한국은행·금융감독원·농협



실질적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패널토론에서 이기원 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산업은행 등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 발제자로 나선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권 등 중부권 공공기관 쏠림 현상을 의식한 듯 ‘전남의 경우 지적적 이전이 충청권에 비해 떨어진 다. 이전 대상 기관 배정 시 정부 개입이 없

으면 충청권에 주요 기관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남부권 광역단체가 정부와 청와대 측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김영록 전남지사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고려해 송 전 위원장이 전남도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 서삼석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민형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호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관계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정부부처사를 단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특별팀)을 구성, 23개 유치 대상 기관과 지역산업 연계 등을 점검하고, 유치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에 대응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 이낙연·김부겸 출마 선언 임박...달아오르는 민주 8월 전대

이, 광주지역 국회의원 만찬 “소명 의식 갖고 당권 도전” 김, “이달내 출마의 변 밝힐 것”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이달 말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지난 15일 저녁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고 “시대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광주 모 의원은 “원래 광주 의원의 만찬 자리였는데 이날 본회의 개최 이후 시간이 난 이 위원장이 함께 하게 됐다”며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

와 관련, ‘소명 의식을 갖고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간단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이 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광주 의원들로서는 사실상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내놓고 나서면 오히려 호남 프레임이 부각될 수 있어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오는 24일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의 활동보고회를 마친 후,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의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당권-대권 분리론’을 토대로 한 견제에 대해 코로나 19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는 ‘소명론’을 내세우며 당권 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전 의원이 16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시기를 봐서 제 나름대로의 비전과 출마의 변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말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가 조금이라도 정상화되면 출마분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의 ‘당 대표 임기 완수’ 발언이 아직도 유효하느냐에 질문에 “그렇다”며 “이는 내가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대전시 정무부시장, 참여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택수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 이전 이낙연 의원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 “나와 이 의원이 직접 만난다는 것은 중요한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 이야기는 지금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대의 화두는 당심과 민심의 일치 여부다. 현재 이낙연 의원이

대선주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지만 전대는 당원들의 참여를 90% 이상 반영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전 전대에서도 ‘대의원 45%, 관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했다. 특히, 당원들이 당권-대권 분리 주장에 동의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직은 광명세를 보이고 있는 당내 친문 의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대권 주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번 전대에 출마해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할 것”이라며 “큰 격차의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 해도 대권 가도 못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당대표 후보 4명 이상이면 7월말 컷오프

민주당 전당대회 룰 가다 코로나 시국 ‘온택트’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8월 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7월 말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르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7월 22~23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일주일 뒤인 29~30일 예비경선을 하는 내용의 전당대회 준비 일정을 정했다. 예비경선은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실시하며 투표 결과 상위 3명이 본선을 치른다. 당권 도전이 점쳐지는 이낙연·우원식·홍영표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모두 출마할 경우 예비경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전준위는 또한 코로나19 시국에 걸맞게 전대를 ‘온택트’ 콘셉트로 치르기로 했다.

온택트는 비대면(언택트)과 온라인을 결합한 개념이다.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현장 집회를 축소하고 온라인 연설 중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당대회 준비 일정은 오는 17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확정된다. 전대 일정은 8월 27일로 확정됐다. 사·도당 대의원 대회도 상무위원 단위로 치르는 것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처럼 전국대의원 1만여명이 체육관에서 모이는 대규모 전당대회 대신 중앙위원들만 모이는 소규모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장대변인은 “중앙위원 규모는 6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들의 현장연설도 대규모 집회의 연설이 아니고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 투표도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